

Plus

‘더하기’ 상표 뜬다

플러스·Plus·+ 결합 상표등록 매년 증가 지난해 180여건... 제품 품질 더 좋게 인식

최근 ‘플러스(Plus) 또는 +’를 넣은 상표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더 좋게 인식할 수 있다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풀이된다.

상표의 주요 키워드는 한때 유행했던 영어위주 표기에서 벗어나 독일, 이태리, 일본, 프랑스어 등 다양한 외국어가 활용되고, 관념적으로는 일류, 세계적, 고품질 등의 개념이 요즘에는 친환경, 웰빙(Well-being), 힐링(Healing)과 함께 플러스가 선호되고 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다른 문자 등에 ‘플러스 또는 덧셈기호 +’를 함께 결합해 만든 상표가 2010년까지는 매년 80여건 정도가 등록됐으나 2011년에는 전년 대비 80% 증가한 150건, 2012년에는 50% 증가한 120여건이 등록에 이어 지난해 11월 현재 180여건이 등록돼 증가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원 업종별로 보면 식·음료품이 100건으로 가장 많고 화장품류 49건 및 이와 관련된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인 광고업이 66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 다양한 상품류를 대상으로 총 800여건의 상표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스 결합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PLUS(플러스), 부호 ‘+’의 경우에 숫자와 결합하면 ‘더하다’는 느낌을 주고, 문자와 결합하면 그 문자의 관념을 강조해 ‘무언가 더 나아지고 더 해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데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플러스’는 상표의 발음이 쉽고 편할 뿐 아니라 외국어를 포함한 세련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이 맞물리면서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한효석 상표디자인심사국 서기관은 “플러스가 갖는 이미지 때문에 앞으로 그 상표의 증가추세는 더욱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단순히 PLUS와 결합된 상표나 식별력(표시된 상표를 소비자가 인식하는 힘)을 갖지 못한 상표는 심사과정에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천원의 행복

‘1000원 마케팅’이 다시 뜨고 있다. 지갑을 여는 데 심리적 부담이 거의 없는 1000원대의 균일가 제품군을 강화하거나 1000원짜리 상품을 한시적으로 내놓고 소비자를 모으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1000원 마케팅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 중인 곳이 외식업계다. 다양한 저가 상품을 내놓으며 소비자의 주문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패스트푸드업체 KFC는 지난 2일부터 커피, 핫초코 등 핫음료 4종을 1000원에 제공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버거킹 역시 아메리카노를 비롯해 칠리 핫도그, 김 핫도그 등 스낵 메뉴를 1000원에 내놨다. 맥도날드는 프렌치 프라이, 탄산음료, 로스트커피 등을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00원만 더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도 활발하다.

미스터피자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따미미야’ 피자를 주문하는 고객들이 1000원만 더 내면 쉐러드바(2인)와 음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소포장 판매를 진행 호응을 얻었던 대형마트에도 최근

“소비자들 닫힌 지갑 열자”... 저렴·실속 ‘1000원 마케팅’ 활발

외식업계·마트·온라인마켓... 다양한 저가상품 잇따라 나와

1000원 단위 균일가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이마트는 최근 1000원에 판매하는 균일가 상품의 인기가 높아져 상품 수를 300여 품목으로 늘렸다.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이다. 야채 등 식·음료상품에서 수세미, 감자깍이 등 주방용품이나 청소용품 등으로 범위가 확산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1000원 균일가 행사에 대한 고객 반응이 좋아 예년보다 행사 품목, 행사 일수를 늘리고 있다.

올해 들어 일주일 간 1000원 균일가로 판매한 청정원 순창 초고추장(170g)과 청정원 순창쌈장200(200g)은 균일가 행사가 없던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각각 326.8%, 232.7%나 뛰었다.

온라인마켓도 1000원 마케팅을 통한 고객 잡기 경쟁이 뜨겁다.

G마켓에서 운영하는 쇼핑사이트 G9에서

는 1000원 이하 저가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식품류가 인가다. ‘종각네 통등심 돈까스’(100g)와 ‘캘리포니아 석류’(1개)는 9일까지 할인가를 적용해 990원에 판매 중이다. G마켓 마트용품 전문 코너인 ‘마트온’에서는 수세미, 면봉, 포일 등 각종 다이소 생필품 대부분을 균일가 1000원에 판매해 인기를 얻고 있다.

11번가도 올 들어 특가 기획전 코너를 확대 개편하면서 대폭 할인가인 1000원 미만의 특가 상품을 매일 정기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불황인 데다 생활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1000원 균일가는 심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는 장점이 있다”며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가격가에 기획해 선보이는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하이진로 ‘일품진로 새해 기념 스페셜 에디션’ 출시

“고객들의 소원성취를 기원합니다”

하이진로(www.hitejinro.com·사장 김인규)가 새해를 맞아 고객들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2014년 일품진로 새해 기념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

‘2014년 일품진로 새해 기념 스페셜 에디션(이하 스페셜 에디션)’은 가족과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적합하도록 고품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특별히 새해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일품(一品)캔들’이 더해진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10년 묵통 숙성으로 맛과 향이 특별한 일품진로 2분과 세련된 전용잔 2개가 함께 포함되어있다. 100% 순쌀 증류원액을 목

통에 숙성시킨 프리미엄 소주의 차별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세트 패키지 또한 실크빛의 골드 색상으로 마무리하여 더했다. 가격은 2만3000원(출고가 기준).

세계 3대 주류품평회 중 하나인 몽드셀렉션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일품진로는 맛과 향이 특별한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다.

숙련된 양조 전문가들이 순쌀 증류원액을 참나무 목통에서 10년 이상 숙성시키고 100% 숙성 원액을 사용하는 등 1924년부터 소주명가 진로의 전통과 노하우를 통해 최고급 프리미엄 소주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일품진로는 지난 7월 제품 리뉴얼을 통해 알콜도수를 23도에서 25도로 높였으며, 기존 제품의 다소 강한 향과 진한 뒷맛을 완화하고, 목통숙성의 부드러운 향과 은은한 맛으로 개선해 프리미엄 소주의 차별화를 실현했다.

병 모양은 기존 원형에서 사각 형태로 바뀌고 고급스러움과 특별함을 살렸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서체는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로 교체해 전통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부드러움을 표현했다.

상표는 한지의 질감을 살린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프리미엄 가치를 더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외제차 오르고 국산차 내린다

등급제 세분화... 126개 모델에 적용

외제차 보험료는 인상되고 국산차 보험료는 내릴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시행한다.

차량모델등급제도는 차종별로 등급을 매겨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적용률을 정하는 것이다.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손해율이 등급 당 5%씩 높아지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인 참조적용률도 올라간다. 예를 들어 참조적용률이 200%로 돼 있다면 가입자는 가중치를 적용해 기존보다 2배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 시판되는 차종 206개 모델 중 총 126개의 보험등급이 변동돼 66개가 등급이 인상되고 60개는 인하된다. 외제차는 34개 대상차종 중 32개가 등급이 올라가며 2개는 유지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차종 중 인상이 되는 차종은 34개에 그친 반면 60개 차종은 등급이 인하되고 78개는 유지된다.

외제차에서는 크라이슬러와 포드, 인피니티, 벤츠 C클래스 등 20개 차종이 지난해 등급에 비해 3등급 이상 인상돼 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크라이슬러와 포드, 인피니티, 폴크스바겐 골프 등 8개 차종의 경우 지난해에는 6등급으로 150%의 참조적용률을 받았지만 올해는 1등급이 되면서 200%의 참조적용률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이 50%포인트 늘었다.

국산차는 전체 172개 차종 가운데 78개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60개 차종은 보험등급이 낮아진다. 소형차(1000cc이상 1600cc미만) 중에서는 뉴프라이드와 세라토가 등급이 3등급 이상 내려가 참조적용률이 15% 줄어든다. 라세티와 신형 이반떼, i30 등 5개는 2등급 인하되며 SM3와 쏘울 등 12개는 1등급 인한다. 반면 K3와 벨로스터, 올뉴프라이드 등 3개는 3등급 이상 인상된다.

중형차(1600cc이상 2000cc미만)에서는 QM5와 뉴 SM5 등 5개가 2등급 인하되고 SM5와 뉴스포티지 등 9개는 1등급 내렸다. 그러나 말리부는 등급이 22등급에서 18등급으로 4등급 상승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정상 매매

1.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3층, 53평
전체 올수리, 코너, 전망 좋음
시세/분양가, 2억원 정도
매매가, 1억 5,500만원

2.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층 상가, 25평
현재, 편의점 임대중
(보 3천에 월125만원)
시세/분양가, 2억5천만원 정도
매매가, 1억 7,500만원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수익률 연20% 보장
투자금 3억원 이상
3.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컴퓨터등 집기 제공
연회비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